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2020:26(3): 5-18
http://dx.doi.org/10.34281/KABP.26.3.1
pISSN 2092-6553 eISSN 2671-5872

신라시대 불국사상의 교학적 이해연구

강 심 혼(고산)* (동국대학교) · 신 성 현** (동국대학교)
k64sh0718@naver.com · neostellar@hanmail.net

< Abstract >

A Study on the Formation of Pure Land of Real-world Buddhism and Immediate Body Accomplishment in Silla Dynasty

Kang, Shim-hun(Gosan) (Dongguk University)
Shin, Shung-hyun (Dongguk University)

Buddhism in the era of the *Silla* dynasty shows an unique idea of Buddha's Land, which is to not only regard the reality of humanity's land as a Pure Land, but also as a Pure Land where those Mahasattvas like Manjusri and Avalokitesvara are residing where any lay people who practice Buddhism can go to Pure Land with their immediate body of this real world. The background of these ideas originates from tough conflicts between the traditional religion of Shamanism and the newly imported Buddhism, so that the king and the royal generation of the *Silla* dynasty had to suggest a foundation of importing Buddhism. Therefore, in *Samgukyusa* 三國遺事, there are many folk tales in which sculptures of Buddhas and Bodhisattvas and Buddhist Stupas are found beneath the land or are forced out of the land, and those tales describe the foundation that regards the land of Silla as Buddha's land in which Buddhas and Bodhisattvas have lived since before the existence of humans.

The idea of Buddha's Land is important, as it has caused many to be devoted to the building of Buddhist relics and constructions like Seokgulam 石窟庵 and Bulguksa Temple, so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background and foundation of the ideas that support those ideas of Buddha's land, which was founded by Wonhyo's *Gum gang sam mae gyung ron* 金剛三昧經論, and Bulgasui's Commentary of Vairocana Sutra's Rite that Wonhyo and other Buddhist masters founded Buddha's land oriented with the Mind Only, as well as Hwaom, who thought that instead of what Bulgasui suggested, the foundation of the practices of Esoteric Buddhism were to support the Immediate Accomplishment of Buddha's body.

Key words: Budda's Land, Wonhyo, Bulgasui, *Gum gang sam mae gyung ron*, Pureland

* 주저자, 동국대대학원 불교학과 박사과정. k64sh0718@naver.com

** 교신저자,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 neostellar@hanmail.net

|| 목 차 ||

- I. 머리말
- II. 불국사상과 현신성불
 - 1. 전통사상의 수용과 불교 흥포
 - 2. 불국사상과 현신성불의 관계
- III. 현신성불의 교학적 토대
 - 1. 원효의 『금강삼매경론』
 - 2. 불가사의의 『부사의소』
- IV. 맺음말

I. 머리말

불교가 도래하기 이전 삼국은 제천사상에 입각해 하늘의 신격이 인간세상에 하강해 인간과 결혼하여 씨족을 형성하고 국가를 성립하였다는 토속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불교가 전래 되어 전통신앙을 대체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신라의 경우 『삼국유사』에서 설한 의상(義湘)이 만나려 했던 낙산의 관세음보살에 관한 이야기나, 자장(慈藏)의 오대산 문수진신(文殊眞身)의 친견담, 땅으로부터 용출한 대승사의 사방불(四方佛) 등과 같은 인연 설화는 신라가 애초부터 불국토(佛國土)로서 불교와 뿌리 깊은 인연이 있음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었다. 또한 이들 설화 속에는 고유의 토착신앙을 신앙하는 신라인들을 이해시켜 불교수용의 갈등을 해소하고, 신라사회를 안정화하려 했던 의도가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신라와 불교의 인연 설화는 불교의 이해가 심화하면서 불국사상에 대한 사상적 토대를 만들어주어 석굴암과 불국사의 건립 등 많은 불교 문화 유적을 남겼다.

자장이 만나려고 했던 문수보살의 화현과 보천·효명 태자의 불보살 현전이라는 종교적 체험은 신라가 불보살이 상주하는 불국임을 말해준다. 또한 노힐부득(努髒夫得)과 달달박박(怛怛朴朴)의 기록은 인간의 몸 자체로써 수행하여 몸을 버리지 않고 그 몸 그대로 성불하는 현신성불(現身成佛)을 보여준다. 이처럼 신라의 불국사상은 현신성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는 불교 교리와 수행에 대한 상당한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의상을 비롯해 원효(元曉)나 태현(太賢), 불가사의(不可思議) 등에 의한 신라의 교학연구는 정토·화엄·유식·밀교 등의 사상을 통해 예토가 바로 정토, 혹은 불국토임을 깨닫게 해주는 수준까지 발전한다. 따라서 신라의 불국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심론적 관점에서 불국사상을 설파한 원효의 주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신라에 전파된 밀교경전인 『대일경』에서는 즉신성불(卽身成佛)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에서 선무의(善無畏) 삼장의 『대비로자나성불신변가지경(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

(이하 『대일경(大日經)』)번역이 이루어진 이후, 화엄계를 비롯한 신라의 많은 승려들은 교학연구를 비롯한 실천원리로 밀교수행에 대한 기대를 갖고 중국 당나라에 유학하며 밀교를 수학하였다. 이는 신라불교에 밀교를 유행시켰고, 고려의 밀교발흥의 토대를 마련해주기도 하였다. 이들 밀교 유학승 중에는 불가사의도 있었으며, 『대일경』의 주석서인 『대비로자나경공양차제법소(大毘盧遮那經供養次第法疏)』(이하 『부사의소(不思議疏)』)를 찬술하여 신라의 불국사상 확립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신라시대에 유행했던 불국사상과 현신성불사상에 대해 초기 제천사상의 흔적으로부터 기존 연구¹⁾에서 주목하지 못하였던 원효의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과 불가사의의 『부사의소』를 중심으로 내면적 사상의 해석을 시도했던 원효와 불가사의 차원 높은 불국사상의 독자성과 이들이 제시한 신라 불국사상의 이론적 토대를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II. 불국사상과 현신성불

1. 전통사상의 수용과 불교 흥포

불교가 삼국에 전래되어 정착하는 과정을 보면 고구려와 백제의 경우에는 중국과의 접촉을 통해 불교를 쉽게 수용할 수 있었다. 반면 신라는 불교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겪는 진통을 겪었다. 단적으로 법흥왕 때에 이차돈의 순교는 그 갈등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보여준다. 하지만 당시 왕실을 중심으로 불교를 지지했던 세력은 신라불교 수용의 필연적 인연을 역설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신속히 봉합하고 신라 사회를 안정시키는데 노력하였다. 불교 수용은 예정된 것으로 오래전부터 신라에 거주하였다고 하는 불보살의 존재와 신라 땅에서 솟아오른 불상, 사방불 등은 불국토로서 신라불교의 인연을 지배배와 피지배배에 설득시키는 방편이었다.

신라를 불국토로서 왕실과 대중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했던 노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불교수용 초기 진흥왕대 이루어진 원광(圓光)의 세속오계(世俗五戒) 주장과 선덕왕(632-647) 때 활동한 자장의 점찰(占察)의 계기는 신라사회에 불교의 율의(律儀)와 인과의 원리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아울러 불국토로서의 인연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려는 노력은 신앙중심으로서 불보살의 거주처인 영장(靈場)의 의식 및 종교신앙의 대상이었던 거석과 불상의 건립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자장은 오대산에 문수보살의 진신이 거주하고 있어 자신이 문수를 친

1) 신라시대의 불국사상에 관한 연구는 자장의 불국토 사상을 논한 金英美, 「慈藏의 佛國土思想」, 『한국사 시민강좌』 10호, 1992.가 있고, 신라 중기 승려들의 정도경 주석서를 토대로 분석한 박광연, 「신라 중대의 정불국토(淨佛國土) 인식과 의미」, 『佛敎學報』 68집, 2014. 등의 연구가 있다.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에 관한 연구는 이평래, 「『금강삼매경론』에서의 여래장설」, 『한국불교학회』 제2차 한국불교학결집대회 2분과 자료집, 2002.과 박태원, 「『金剛三昧經』·『金剛三昧經論』과 원효사상(I) : 中觀·唯識의 화쟁적 종합을 중심으로」, 『元曉學研究』 제5집, 元曉學研究院, 2002. 등이 있으나 원효의 불국토사상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지는 못하였다. 아울러 불가사의에 관한 연구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체로 그의 밀교사상에 관한 것으로 全東赫, 「唐朝의 純密盛行과 入唐 新羅 密敎僧들의 思想」, 『中央增加大學論文集』 5집, 1996. ; 김연민, 「8·9세기 新羅의 中期密敎 유학승」, 『新羅史學報』 47집, 2019. 등의 연구가 있다.

견하는 과정에서 문수보살로부터 질책을 당하는 망신을 자처함으로써 오대산을 문수보살의 거주처로 실제화시켰다.²⁾

의상은 중국에 유학하여 화엄을 연구하였고, 불교의 대중홍포에도 관심을 기울여 스스로 낙산을 찾아 관세음보살을 친견하려 한 관음신앙의 확산에 기여하였다.³⁾ 의상의 낙산사 건립은 신라의 관음신앙이 화엄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⁴⁾ ‘낙산’의 명칭은 낙산은 보달락가산(補怛洛迦山)의 약칭으로, 『화엄경』에서 이곳은 관음주처이다. 관세음보살 현신의 출현 역시 불국과 현신사상이 어우러진 신라의 불국 세계관을 나타내는 것이다. 『삼국유사』에서 설하고 있는 석불상과 사방불의 석물들이 땅에서 솟아 신앙처가 된 대승사와 칠불사의 인연 설화는 신라가 불국토로서 불보살의 거주처로 오랜 인연이었음을 각인시켰다. 이로써, 신라에서는 불교수용으로 인한 제천신앙과의 갈등을 숙연과 공존의 양면이라는 입장에서 융합시키고 제천사상에 입각한 산신, 용, 성숙 등의 전통신격은 제석천과 사천왕 같은 신증으로 대치되었다.⁵⁾

2. 불국사상과 현신성불의 관계

불국신앙은 신라의 불교수용 초기 불교의 정착에 중요한 시대적 역할을 하였고, 더불어 이에 대한 교학적 연구도 적지 않게 이루어졌다. 신라 진평왕 39년(617)에서부터 신문왕 6년(686)까지 활동한 원효의 경우 의상과의 중국유학을 포기하고,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신라에 없는 진리가 당에 간들 있겠으며 당에 있는 진리가 신라에는 없겠는가?”라고 하여 불국의 근거를 마음에서 찾았다. 불국토와 관련한 신앙은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었는데, 특히 정토와 미륵신앙 등과 관련하여 엮을 수 있다.⁶⁾ 이 가운데 통일신라의 이상적인 국가를 마련하는데 뒷받침된 신앙은 미륵신앙이었다. 미륵사상은 상생(上生)과 하생(下生)의 두 가지로 나뉜다. 미륵신앙에서 미륵은 석가모니부다의 제자였으며, 도솔천에서 설법하고 있는 미륵이 57억만년에 인간계로 하생하여 용화세계에서 성불한다는 것에 기반하는 사상이다. 그래서 신라에서는 미륵신앙의 이런 사상을 토대로 미륵보살이 미륵불이 되어서 하생하게 하려면 신라의 땅을 깨

2) 『三國遺事』 「臺山五萬眞身」.

3) 의상은 신라 화엄의 대성자이면서도 실천 불교의 이념을 미타정토와 관음신앙에 두고 있었는데 그것은 서민불교의 실천을 위한 것이었다. 高翊晉, 『韓國古代佛敎思想史』,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9, 301-311쪽.

4) 의상은 「백화도량발원문」을 통해서 관음신앙을 화엄적으로 펼치고 있다.

5) 김영태, 『한국불교사개설』, 경서원, 1986. ; 김영태, 『삼국시대 서민들의 불교신앙』, 『한국불교학』 제12집, 한국불교학회, 1987. ; 고익진, 『한국고대불교사상사』, 동국대출판부, 1989. ; 김상현, 『신라중고기 업설의 수용과 의의』, 『한국고대사연구』, 제4집, 한국고대사연구회, 1991. ; 김영미, 『불교의 수용과 신라인의 죽음관의 변화』, 『한국고대사연구』 제20집, 2000. 등의 논저가 있다.

6) 삼국시대에는 미륵신앙에 이어 아미타불의 원력을 신해(信解)하여 왕생극락을 도모하는 정토신앙이 유행하였다. 정토신앙은 아미타불의 극락정토에 왕생하려는 신앙이 그 중심을 이루며, 이의 약사유리광여래나 아축불국 등 다른 대승경전에서 다양한 정도의 시설을 볼 수 있고, 원효와 태현 등에 의해 대중적 교화를 선도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 원래 정토신앙은 『아미타경(阿彌陀經)』을 비롯한 정토3부경에 입각한 신앙으로 아미타불의 전신인 법장보살이 세운 48대원(大願)에 의지해 사후 정토에 왕생하여 수행한 후 성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정토사상의 교학적 발전으로 인해 인간이 머무는 사바세계를 정토로 간주하는 차토정토나 유심정토설이 제기됨으로 인해 신라의 불국사상의 한 축을 형성하게 된다.

뜻이 만들어야 한다는 정도신앙으로 연결된다.

신라는 이상국가의 통치 모델로서 불교의 전륜왕사상을 수용하였는데, 불교에서 전륜왕이 되는 것은 사해(四海)를 정복하는 무력의 왕이 아니라 불교사상에 입각해 인간 세상을 이상향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신라의 왕들은 인과와 업설을 지지하며, 계율을 지키고, 선을 닦기 위해 노력하여 불국을 통치하는데 걸맞는 이상적 통치자가 되려고 노력하였다. 신라의 경우 미륵신앙에 입각한 전륜왕 통치 이념의 확산은 진흥왕 때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진흥왕은 미륵사상에 입각해 화랑(花郎)을 창설하였는데,⁷⁾ 화랑은 전통세계관과 불교의 계율관이 융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화랑과 이들을 따르는 낭도가 삼국통일의 주역이 되었다. 또한 진흥왕은 팔관회를 열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미륵사상을 중심으로 결집시켰는데, 그는 스스로 전륜왕이라고 칭하였을 뿐 아니라 그의 두 태자를 각각 동륜(銅輪)과 금륜(金輪)이라 이름한 것도 전륜왕사상과 깊은 관계가 있다.⁸⁾ 아울러 신라의 위정자들은 이상적 왕이 되고자 『인왕경(仁王經)』을 읽고 인왕도량을 열어, 『인왕경』은 불교사상을 중심으로 위정자들에게 이상적 왕이 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⁹⁾

이러한 불국사상의 확산은 위정자와 대중들 모두에게 불국도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한 실천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불국도에 거주할 수 있는 인간의 완성을 인간의 몸을 가진 채 성불에 이르는 현신성불¹⁰⁾로 보았다.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이 현재의 몸 그대로 성불한 것은 불국과 현신성불이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¹¹⁾ 즉 신라에서는 미륵신앙을 기저로 하여 신라의 불국사상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신라에서는 신앙의 중심으로서 미래 미륵불의 신장을 고려한 거대 미륵불상이 조성되었고, 불국사도 세웠다.

Ⅲ. 현신성불의 교학적 토대

1. 원효의 『금강삼매경론』

7) 金煥泰, 「新羅眞興大王的 信佛과 그 思想研究」, 『佛敎學報』 제5집,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1967, 67쪽.

8)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第4 眞興王 27年 2月, 33年 3月과 同 眞智王 眞平王條 初頭 및 『三國遺事』 「王曆」 第1 第25 眞智王, 第26 眞平王의 기록에서 진흥왕의 태자에 동륜 금륜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9) 인왕도량의 연원은 진 무제(陳武帝) 3년(559)에 대내에서 인왕대제(仁王大齋)를 베푼 것을 시작하여 북제 무평(北齊武帝) 570-575) 초에도 『인왕경』 강회가 있었고, 지덕(至德) 3년(585)에도 왕명에 의해 인왕경강회가 태극전(太極殿)과 광택사(光宅寺)에서 개최되었고 지의(智顛)가 그 강의를 맡았다. 이 밖에도 『속고승전(續高僧傳)』 현장·지엄·승변조에서도 인왕법회가 강의되었음을 말해 주는 기록이 있다. 당대(唐代)에 들어서 『인왕경』에 대한 실천은 더욱 부각된다. 태종 정관(太宗 貞觀) 3년(629) 정월에는 장안의 사문(沙門)들을 모아 대대적인 인왕백고좌법회를 열었는데 이런 법회를 계속해서 매월 27일에 열었다고 한다.

10) 김영태는,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를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이 다른 나라의 종교가 아닌 신라적인 신앙으로서의 이념을 정립시켰고 신라가 바로 부처님의 나라요 땅이라는 사상과 불교의 현실적 응용은 물론 미래지향적인 믿음도 발전시켜 나갔다. 그리하여 신라불교는 마침내 신라사람이 미타불이 되고 미륵불이 되는 현신성불로까지 승화되게 되었다” 라고 말한다. 金煥泰, 『三國時代 佛敎信仰研究』, 불광출판사, 1990, 150-164쪽; 399-413쪽. 또한 현신성불의 사상적 근거로, “살아서 움직이는 불상(생신여래)관이 더욱 창의적으로 발전되고 신라를 부처님의 나라로 이룩하려는 신라 특유의 신불사상에서 나온 필연적 결과였다.”라고 한다. 金煥泰, 『新羅佛敎의 現身成佛觀』, 『新羅文化』 제1집, 東大新羅文化研究所, 1984, 11쪽.

11) 『三國遺事』 「南白月二聖 努盼夫得 怛怛朴條」.

신라시대에 유포된 불국사상은 이를 뒷받침하고자 하는 교학적 연구가 진행됨으로써 더욱 확고해졌다. 신라의 불교수용 초기에는 불국사상을 위한 영장이나 유적, 점찰법, 화랑과 같은 사회적 기제가 발전하였고, 점차 『인왕경(仁王經)』이나 『미륵경(彌勒經)』의 연구를 비롯한 주변의 교학적 연구가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 신라불교 초기의 교학은 원효와 의상을 시작으로 화엄·유식·중관·여래장 등 다양한 불교사상의 토대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불교와 인연이 깊은 불보살의 거주처는 점차 유식이나 여래장, 화엄사상에 입각한 사상적 전환을 보인다.¹²⁾ 그리고 후대에는 밀교와 선에 입각한 연구도 개진되었다. 신라의 불국사상을 뒷받침하는 연구의 갈래를 살펴보면 크게 의상의 화엄과 원측의 유식, 원효의 유식·여래장사상을 중심으로 한 중심론적 불국토관을 제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

원효의 많은 저술 가운데에서도 『금강삼매경론』에서 제시한 금강삼매를 통한 불국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금강삼매경』은 「서품」의 서분, 7품의 정설분, 유통분으로 구성되어, 정설분의 7품은 각각 독립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금강삼매경』에 대해서는 위경 논란으로 그 찬술 배경에 대한 많은 이론이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신라찬술의 이론과 더불어 원효에 의한 주석으로서 적어도 대승불교의 두 축인 중관·유식의 대립에서 보이는 공(空)·유(有) 논쟁을 ‘중관·유식의 화쟁적 종합’으로 구현하고자 했던 문헌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성을 가진다.¹³⁾ 하지만 『금강삼매경』에 관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에서 『금강삼매경론』이 가진 권위만큼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금강삼매경론』은 20부 22권에 이르는 원효의 저술 가운데 비교적 말년의 저술이라고 사료된다. 찬령(919-1001)의 『송고승전(宋高僧傳)』에 따르면 이 경전이 세상에 처음 나타난 것은 7세기 중엽 신라 대안(大安)에 의해서이고, 최초 강설자는 원효라고 설명하고 있다.

『금강삼매경론』에서 불국사상이 나타나는 것은 정토와 불국과 관계된 이론이다. 『금강삼매경론』에서는 왕생극락에 대해, “모든 악도를 떠나며 마땅히 정토에 출생한다는 것은 화보(華報)를 설명한다.”¹⁴⁾라고 하였다. 원효는 『대승기신론』의 연장선에서 아미타불에 의한 왕생극락의 방편을 인정하였고, 『금강삼매경론』도 이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행도로서의 방편과 달리 『금강삼매경론』에서는 중관과 유식의 양단을 지양하고, 일심(一心)에 의한 본각으로 회통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보인다. 이평래는 “원효는 『금강삼매경』·『금강삼매경론』에 『대승기신론』·『대승

12) 의상의 경우 그의 사상은 「법성계」라는 단일 문헌보다 의상계의 화엄학의 근거가 되는 『법계도기총수록(法界圖記叢髓錄)』과 균여 등의 저술들을 통해 나타날 것이다. 여기서 불국토나 현신성불에 대한 개연성은 주로 살펴보면 화엄의 법계설을 중심으로 개진된다고 할 수 있다. ; 의상과 원효의 경우 원효의 『대승기신론』 이해가 화엄사상에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또 십불, 육상의, 수십전유 등에 대한 원효의 견해는 의상 화엄교학의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 인정된다. 高翊晉, 앞의 책, 1989, 246-274쪽. ; 海住, 「元曉의 和靜과 華嚴思想」, 『韓國佛敎學』 제24집, 한국불교학회, 1998, 155-164쪽. ; 한중만, 「대승기신론에 대한 원효의 화엄학적 이해」, 『元曉學研究』 제6집, 원효사상연구원, 2001, 137-162쪽.

13) 원효가 일심을 공·유 화쟁의 토대로 삼는 것은 분명하다. 더 상세한 논의는 朴太源, 앞의 책, 1994, 68-112쪽 참조. 김영태는 『금강삼매경』의 신라찬술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한 끝에 신라 대승불교의 주체였던 대안(大安)·혜공(惠空)·사복(蛇福) 등을 그 찬술자로 지목한다. 남동신 역시 김영태의 입장에 동의하면서, 대안을 비롯하여 대승교화에 뜻을 둔 일군의 승려들이 자신들의 이상형인 범행장자를 주요 등장 인물로 하는 『금강삼매경』을 편찬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金煥泰, 「신라에서 이룩된 금강삼매경」, 『불교학보』 제25집,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 1988, 11-37쪽. ; 南東信, 「新羅 中代佛敎의 성립에 관한 연구 -금강삼매경과 금강삼매경론의 분석을 중심으로-」, 『韓國文化』 제21집,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8, 113-142쪽.

14) 『金剛三昧經論』(『韓佛全』 1, 677상).

기신론소』의 논리구조와 그 속에 담긴 여래장사상을 도입하여 그의 불교관의 일단을 전개하고 있다. 『금강삼매경론』에서의 「무상법품」과 「무생행품」은 주관과 객관의 대립을 지향하기 위한 과정으로 주객의 소멸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¹⁵⁾ 여기서 불국은 정토나 외경의 소산이 아니고, 주객소멸의 경지를 보이는 금강삼매에서 실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국은 금강삼매에서 보이는 분별과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실체이다.

『금강삼매경론』 「진성공품」에서 밝히는 절대공성은 진성과 진공이며, 진속의 차별도 없지만 도리어 진리의 자리(眞諦)와 유정의 경계(俗諦)가 갈등 없이 공존하는 것이다.¹⁶⁾ 이것은 금강삼매의 내용에서 더욱 자세히 드러난다. 『금강삼매경론』에서 원효는 “관행이라 말한 것에서 관은 공간적으로 논한 것으로 경과 지에 통하고, 행은 시간적으로 바라본 것으로 그 인(因)과 과(果)에 미친다.”¹⁷⁾라고 한다. 즉 관경지에 이르는 심경과 시공의 인과가 존재하는 행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자력과 타력의 양면이 용납되는 것이다.

또한 『금강삼매경』에서는 “경(境)은 곧 진(眞)과 속(俗)의 분별이 사라진 것이다.”¹⁸⁾라고 하였는데, 원효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한다.

이 관문에서는 처음의 신해(信解)로부터 (여섯째) 등각(等覺)에 이르기까지 육행(六行)을 세운다. 육행이 원만해질 때 9식(九識)으로 전환되고 현현하니, 진여(眞如)를 현현시켜 청정법계로 삼고, 그 밖의 8식(八識)을 전환시켜 4지(四智)를 성취하니, 오법(五法)이 이미 원만해지므로, 삼신(三身)이 갖추어진다. 이와 같이 인과는 경과 지를 벗어나지 않으며, 경과 지는 둘이 아니라 오직 일미(一昧)일 뿐이다. 이와 같은 일미관행이야말로 『금강삼매경』의 중지이다.¹⁹⁾

원효는 진리가 아닌 것을 타파하기 때문에 금강삼매²⁰⁾라 한다고 하였다. 금강삼매의 수행을 요약하면 유식의 전식득지(轉識得智)를 이루고, 삼신을 구축하는 것이다. 삼신은 법신·보신·화신을 구현하여 육도의 유정들을 구제하기 위한 일체중지, 또는 일체지지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진정한 불국토는 진리의 절대적 깨달음으로 완성된다. 정각자와 유정이 공존하는 사바세계는 진제와 중생구제의 설법과 방편을 시설하고, 불국토와 정토가 따로 존재한다. 하지만 원효는 『

15) 이평래, 「『금강삼매경론』에서의 여래장설」, 『한국불교학회』 제2차 한국불교학결집대회 2분과 자료집, 2002, 58-60쪽.

16) 김호귀는 한글본 해설에서, “『금강삼매경』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은 곧 선사상, 여래장 및 불성의 사상, 화엄의 연기의 사상, 법화의 실상의 사상, 중관의 공과 법상유식의 사상, 참회를 비롯한 복덕을 추구하는 신앙 등이 보이며, 또한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뜻이 각양각색으로 전개된다. 경문에 전개되어 있는 사상적인 구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상법품」의 해탈 보살과 「무생행품」의 심왕 보살과 「본각리품」의 무주 보살과 「입실제품」의 대력 보살들이 질문한 내용은 중도(中道)의 뜻을 드러낸 것이고, 「진성공품」에서 사라불이 질문한 것은 진공(眞空)의 뜻을 드러낸 것이며, 「여래장품」에서 범행 장자가 질문한 것은 속제(俗諦)와 묘유(妙有)의 뜻을 드러낸 것이다. 여기에서 묘유는 불유(不有)이고 진공은 불공(不空)으로서 모두 법성의 부사의한 경계를 장엄한 것이므로 딱히 언어와 개념의 경계에 머물러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였다.

17) 『金剛三昧經論』(『韓佛全』 1, 604하). “言觀行者 觀是橫論 通於境智 行是豎望 互其因果.”

18) 『金剛三昧經論』(『韓佛全』 1, 599하). “境即眞俗雙泯.”

19) 『金剛三昧經論』(『韓佛全』 1, 599하). “於此觀門 從初信解乃至等覺 立爲六行 六行滿時 九識轉顯 顯無垢識爲淨法界 轉餘八識而成四智 五法既圓三身斯備 如是因果不離境智 境智無二 唯是一味觀行以爲此經宗也.”

20) 원효는 여기서 삼매에 대해서는 1) 삼마희다(三摩呬多), 2) 삼마지(三摩地)는 삼마제(三摩提), 3) 삼마발제(三摩鉢提), 4) 태연나(駄演那) 5)사마타(奢摩他), 6) 심일경성(心一境性), 7) 정(定), 8) 정사(正思)로 구분하여 해설을 붙이고 있다.

대승기신론』과 『금강삼매경론』을 통해 진정한 불국토는 진속의 대립마저 사라진 무분별지²¹⁾에서 구현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원효는 불교수용 초기 불국토를 하늘에서 구하려 했던 미망에서 벗어나 『금강삼매경』의 주석 등을 통해 불국의 본의를 탁월한 해석으로 드러내었다고 할 수 있다.

2. 불가사의의 『부사의소』

2. 1. 『부사의소』의 저술배경

원효가 활동했던 시대에는 신라불교수용 초기로 『약사경(藥師經)』, 『관정경(灌頂經)』 등의 잡 밀계 밀교경전이 들어왔고, 원효 자신은 『불공견색신변진언경(不空羼索神變眞言經)』을 인용하여 『유심안락도(遊心安樂道)』 가운데 광명진언(光明眞言)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신라에 『대일경』과 『금강정경(金剛頂經)』을 위시한 순밀이 들어온 것은 100여 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뒤의 일이었다. 불가사의의 『부사의소』가 신라에서 유행하였다는 사실은 진표(眞表)올사가 제자들에게 『점찰경(占察經)』과 『부사의소』, 그리고 점찰을 위한 도구를 전했다는 사실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²²⁾

수말당초 시대에는 천태지의(天台智顚)와 제자인 관정(灌頂)에 의해 지관(地觀)의 이론이 정비되기 시작하였는데 이 시기에 선무외삼장²³⁾이 중국에 들어와 무행(無行)의 『대일경』 범본을 번역하였다. 『대일경』에서 진언문(眞言門)으로 알려진 밀교수행을 제시하자 중국의 화엄학계는 적지 않은 관심을 보였다. 『대일경』은 사상적으로 『화엄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화엄경』에서는 다라니와 비로자나여래, 일체지지, 신변 사상 등을 설하고 있어 신라의 많은 화엄승들도 도당하여 선무외삼장으로부터 밀교를 수학하였다. 선무외삼장의 문하에서 수학한 신라의 학승의 한명이었던 불가사의는 『대일경』과 『금강정경』의 양부경전을 중심으로 정통밀교를 수학하였고, 『부사의소』라는 『대일경』의 부속의궤에 속하는 7권 5품에 대한 주석을 남겼다.²⁴⁾

불가사의의 이 주석서는 밀교경전에 대한 현존하는 유일한 주석이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주

21) 박태원은 “『금강삼매경』은 각(覺)을 매개로 중관유식의 화쟁적 종합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금강삼매경』사상의 핵심이며 가장 뚜렷한 개성이 바로 각사상(始覺本覺)임을 꿰뚫고 있는 원효는, 『금강삼매경』의 각사상이 지니는 ‘중관유식의 화쟁적 종합’이라는 성격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며 활용한다. 원효는 진여(眞如)인 음마라식(庵摩羅識)의 경지를 본각 이외에도 일심일심본각본각여래장심본각일심지원 등의 언어로 지칭하면서, 진여의 경지에 관하여 중관과 유식을 화쟁적으로 종합시킨 서술을 전개하고, 이 화쟁의 경지를 ‘언을 것 없는 一味’라는 말로 총괄시킨다.”라고 말한다. 박태원, 『金剛三昧經』·『金剛三昧經論』과 원효사상(I) : 中觀·唯識의 화쟁적 종합을 중심으로, 『元曉學研究』 제5집, 元曉學研究院, 2002, 368-373쪽.

22) 『三國遺事』 「眞傳傳簡條」.

23) 선무외삼장은 80세 때 당 현종 개원4년(716), 80세에 장안(長安)에 도착하여 『대일경』을 비롯한 밀교경전과 부속의궤를 번역하였다. 『개원석교록(開元釋教錄)』 권9에는 선무외삼장이 역출한 4부 14권의 경명이 전해진다. 경명은 ① 『허공장구문지법(虛空藏求聞持法)』 10권; ② 『대비로자나성불신변가지경(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 7권; ③ 『소파호동자경(蘇婆呼童子經)』 3권; ④ 『소실지리라경(蘇悉地厘羅經)』 3권이다.

24) 『부사의소』의 저술내력과 불가사의에 대한 행적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문헌은 남아있지 않다. 『부법기(付法記)』를 보면 불가사의가 활약했을 당시 중국밀교의 일면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중국에는 선무외삼장이 『대일경』을 최초 역출한 이후, 금강지삼장이 들어와 주로 『금강정경』 계통의 경계를 번역하였다. 두 역경승이 전한 『대일경』과 『금강정경』은 제자들에 의해 태장계(胎藏界)와 금강계(金剛界)로 양분되어 금태양부(金胎兩部)의 동북아시아의 독특한 밀교세계를 형성하였다.

석방식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신라불교가 지속시켜온 관세음보살과 비로자나여래에 대한 신앙, 밀교경전인 『불공견색신변진언경』의 유행에 대한 흔적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한 문헌으로 평가받는다. 불가사의의 『부사의소』와 선무외삼장의 제자인 일행(一行)이 찬집한 『대일경소』의 성립 전후 관계를 볼 때, 『대일경소』에서는 이 7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부사의소』에는 『대일경소』를 인용한 내용이 부분적으로 있기 때문에 『대일경소』의 성립이 『부사의소』를 앞선 것으로 보인다.²⁵⁾

불가사의는 각 품의 해석을 ① 대의(大意), ② 설해진 연유, ③ 제목풀이, ④ 경문에 따른 해석의 네 단원으로 나누어 주석하고 있다.²⁶⁾ 또한 『부사의소』에는 ‘태장(胎藏)’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반면 『금강정경』에 대한 언급도 보이므로 『대일경』의 번역 이후 『금강정경』이 소개되었던 시기에 『대일경』 전체의 내용을 실천적 입장에서 정리하기 위해 『부사의소』가 저술된 것으로 보인다.

2. 2. 일체지지(一切智智)와 진언행(眞言行)

제재초복(除災招福)이나 내세의 안녕을 위한 주술중심의 잡밀과 달리 불가사의가 수학한 『대일경』 중심의 밀교에서는 진언·수인·만다라 등의 소재를 소연상(所緣相)으로 삼아 성불을 목표로 한 조직화 된 밀교수행을 가르쳐 신라에도 이러한 밀교수행이 불가사의의 『부사의소』를 통해 전해졌다.²⁷⁾ 밀교에서는 현교(顯敎)에서보다도 더 체계적이고, 보편적인 신앙의 목표로 즉신 성불사상 내세우고 있는데, 『대일경』에서는 즉신성불을 할 수 있는 대상을 범부중생이 아닌 밀교를 수행하는 보살지에 오른 보살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망집(妄執)을 타파하면 현재의 이 몸으로도 부처를 이루는 즉신성불, 즉 현신성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밀교적 수행을 통해 성불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²⁸⁾

『대일경』에서는 보리심을 참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아자관(阿字觀)과 방편을 얻기 위해 불신(佛身)을 구축하는 방법으로 오자엄신관(五字嚴身觀)을 설하고 있다. 그래서 불가사의 역시 본면목을 참구하는 아자관과 오자엄신관의 두 가지 수행을 제시한다. 불가사의는 『부사의소』 주석을 마치면서 “분류에 따라 끝까지 도리를 깨었다. 원컨대 이 책으로 인해 홀로라도 본불생(本不生)의 도리를 보고, 이 가운데 증득하길 바란다.”²⁹⁾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아자관의 수행에 의해 시설된다. 또한, 『대일경』에서는 수행자가 몸을 가진 채로 법계의 불신을 완성하는 수행은 오자엄신관으로 설한다. 오자엄신관의 실제 수행은 『대일경』에 최초로 설해진 대로 오른 형

25) 鄭盛準, 「대비로자나경차제법소(大毘盧遮那經次第法疏)의 밀교사적 의미 고찰, 『韓國佛敎學』 제50집, 한국불교학회, 2008, 486쪽.

26) 경전 전체의 내용 구성을 파악하기 위해 네 번째인 경문에 따른 해석 부분을 제외하고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진언행학처품」, ② 「증의수호청정행품」, ③ 「공양의식품」, ④ 「지송법칙품」, ⑤ 「진언사업품」, 여기서 「진언행학처품」은 진언문의 대의를 「증의수호청정행품」은 진언문 수행 시 수호존을 소청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양의식품」은 스승에 대한 귀경과 공양의식이 설해지고, 「지송법칙품」은 진언문 수행의 자세가 설해지고— 마지막으로 「진언사업품」은 진언행자가 성취 후 중생을 구호하기 위해 관세음보살과 수호존의 실지를 구현하는 법이 소개되어 있다.

27) 鄭盛準, 위의 책, 483-484쪽.

28) 서운길, 「신라 현신성불(現身成佛)의 밀교적 영향」, 『불교학보』 제42집,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 2005, 11-12쪽.

29) 『大毘盧遮那經供養次第法疏』(『韓佛全』 3, 409상). “此文造人新羅國 零妙之寺釋僧不可思議 隨分穿鑿 願此文見獨知於本不生 理中證”.

태의 불탑을 상징하는 A·Va·Ra·Ha·Kha의 다섯 종자를 수행자의 다섯 신체 부위인 하부, 단전, 가슴, 목, 미간에 순서적으로 배열하여 관함으로써, 수행자와 불탑을 동일시하여 수행자가 바로 불탑에 비유된 진리의 본체임을 자각하는 수행이다.

불가사의는 『부사의소』에서 『대일경』에서 밀교 수행으로 제시한 진언문(眞言文)을 진언행(眞言行)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그 대의를 설명한다.

무릇 진성의 지극한 이치는 말을 떠나고, 상(相)을 끊어 비로서 상이 없는 비현을 나타내 보인다. 이른바 아자(阿字) 등의 문이 그 이치를 밝힌 것이다. 이 경전은 말의 뜻이 글 밖에 끊어진 것에 이치를 모아 놓았기 때문에 여래의 가지(加持)로 신력은 비밀스러운 수인(手印)을 마주하고, 진언으로 인도한다. (중략) 만약 (진언문을) 보고 들어 정례하면 항하사의 죄를 멸할 수 있고, 설한 바대로 받들면 그 몸에 덕이 바다와 같이 모일 것이다.³⁰⁾

위와 같은 아자문(阿字門) 수행법은 비로자나여래의 본심을 참구하는 수행법으로 산스크리트어의 가장 첫 글자인 ‘A’자를 실담자(悉曇字, siddham)로 표현하고, 이것을 소연상으로 삼아 관상(觀想)하는 수행법이다. 이 아자관은 ‘아자본불생(阿字本不生)’으로 아자에 비로자나여래를 비유하여 불생불멸의 비로자나여래의 체성을 체득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행방법은 『반야경』, 『화엄경』, 『열반경』에서도 설한다.³¹⁾ 불가사의는 이 ‘실담아자’가 모든 진언의 중심이며, 비로자나여래의 체(體)이므로, 이 실담아자는 진언행자가 비로자나여래를 나타내는 아자와 상응하는 삼밀가지의 완성이라 할 수 있다.³²⁾

『부사의소』에서 불가사의는 “청정한 보리심은 곧 진언이며, 바르게 진언을 수행하는 것이 삼매를 닦는 때”³³⁾라고 하며, 성불을 위해 진언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불가사의는 아자관과 진언문의 수행을 통해 여래의 가지력에 힘입어 죄의 소멸과 덕을 쌓아 불보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불가사의는 실담아자의 진언행의 의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일체의 언어가 들리 때 즉 아자의 소리를 듣는 것과 같아 이와 같이 일체법이 생기는 것을 보는 것이 곧 본불생체를 보는 것이다. 만약 본래 생겨남이 없는 이치[本不生際]를 본다면 곧 이것은 여실하게 자신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여실한 자신의 마음을 알면 곧 이것이 일체지지(一切智智)이므로 비로자나는 오직 이 아자 하나로 진언을 삼는다.³⁴⁾

이와 같이 불가사의는 실담아자의 진언행으로 본불생체를 체득할 수 있고, 이것은 곧 일체지지인 비로자나여래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30) 『大毘盧遮那經供養次第法疏』(『韓佛全』 3, 383상). “夫眞性至理離言絕像 應機示現無相非顯. 所謂阿字等門妙明其理. 今此經者理蘊於詞意絕文外 是故以如來加持神力對以祕印 導以眞言. (중략) 若得見聞頂禮者滅除恒沙之罪 如說奉行者德海集於其身也

31) 鄭盛準, 앞의 책, 494쪽.

32) 강대현, 「신라승 불가사의(不可思議)의 실담아자(悉曇字)에 대한 삼종비석사상(三種非釋思想)」, 『韓國思想史學』 제47집, 한국사상사학회, 81쪽.

33) 『大毘盧遮那經供養次第法疏』(『韓佛全』 3, 384하).

34) 『大毘盧遮那經供養次第法疏』(『韓佛全』 3, 404하~405상). “猶如聞一切語言時 卽是聞 阿聲 如是見一切法生 卽是見本不生際. 若見本不生際 卽是如實知自心 如實知自心 卽是一切智智 故毘盧遮那唯以此一字爲眞言也.”

『대일경』 초품인 「입진언문주심품(入眞言文住心品)」(이하 「주심품」)에서는 반야·중관·유식·여래장사상 등의 교리와 그에 따른 실천에 관해 밝히고 있지만, 비로자나여래의 깨달음의 세계를 설하는 것이 중심 주제이다.³⁵⁾ 이 품에서는 비로자나여래가 일체지지로서 불지(佛智)를 완성한 경계에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여러 중생계를 다니며, 다양한 근거에 맞추어 설법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주심품」에서 비로자나여래의 자내증(自內證)인 일체지지는 “보리심을 인(因)으로 삼고, 자비심을 근(根)으로 하며, 방편을 구경(究竟)으로 삼는다.”³⁶⁾라고 하며 일체지지로서 ‘3구법문(三句法門)’을 설한다. 이것은 일체지지에 이르는 심(心)의 불생불멸의 인연을 설명한 것이다. 일체지지는 실재하는 우주의 영원한 상으로, 인·근·구경은 마음의 전개이고, 이것이 곧 일체지지의 전개인 것이다.³⁷⁾ 이에 대해 불가사의는 『부사의소』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진언문에서 마음을 깨달아 상응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본존을 관하고, 본존을 관하는 것이 성숙되면, 자신을 본존으로 완성하는 것이다. 여기서 마음이 산란치 않는 것을 상응이라고 한다.³⁸⁾

이것은 본심참구에서 출발하여 현세에서 불신(佛身)의 완성이라는 일체지지의 수행도를 요약한 것이다. 불가사의는 일체지지는 불신관에 입각해 중생을 구호할 수 있는 삼신(三身)과 신변을 수행의 구경으로 삼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부사의소』의 유행은 의상의 연기법계관이나 원효의 유심론적 수행원리를 밀교수행의 실천작법으로 재수용하여, 신라에서 대중들이 불보살에게 기대하는 중생구제의 신앙에만 머물지 않고, 불교수행자 스스로 법계와 동일시되고 중생구제의 주체가 되는 인식을 갖게 하였을 것이다. 즉 불가사의의 『부사의소』를 통해 신라 사회에 현실성불의 적극적 실천원리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IV. 맺음말

이상으로 본 논문에서는 원효의 『금강삼매경론』과 불가사의가 찬술한 밀교의 『대일경』 주석서인 『부사의소』를 중심으로 신라시대에 유행했던 불국사상과 현신성불사상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신라불교에서 불국토의 건설은 만불산이나 석굴암의 건립을 통해 예토를 불국토로 만들려고 하는 바람으로도 나타났다. 그것은 당시 신라가 불교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겪은 혼란함을 없애기 위해 더욱 필요로 하였기 때문이다. 불국토의 건설은 『점찰경』이나 『인왕경』에서 이상적

35) 鄭盛準, 앞의 책, 495쪽.

36)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大正藏』18, 1상).

37) 이정수, 『大日經의 사상과 수행체계』, 민족사, 2007. 176쪽.

38) 『大毘盧遮那經供養次第法疏』(『韓佛全』3, 385상). “第五段中妙眞言門覺心者 等相應者有二 先觀本尊 觀本尊熟自身作本尊 此心不散亂言相應也 智者悟本不生理”.

불국과 국왕의 마음가짐을 기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신라의 위정자들은 전륜성왕과 같은 이상적인 왕이 되고자 하였고, 이로 인해 불국사상은 불국토에 살기 위한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한 실천행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불국토에 거주하기 위해 인간의 형체를 하고 성불하는 현신성불의 개념도 나타나게 된다. 그 결과 신라는 통일 이후에도 불국사상을 펼쳤고 이와 관련한 무수한 유물과 유적을 남겼다. 동시에 신라에서는 불국사상이 제기될 수 있는 많은 논의가 화엄·유식·여래장 사상을 근간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원효는 불국사상을 정도와 불국과 연관지어 불국사상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원효는 『금강삼매경론』에서 불국은 금강삼매에서 보이는 분별과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실재이며, 진속의 대립마저 없는 무분별지에서 구현된다고 보았다. 원효는 금강삼매의 수행은 전식득지를 이루어 삼신을 구축하여 일체지지를 마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것은 곧 불신의 완성으로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방편의 제시였다.

원효와는 100년의 격차를 두고 전개된 불가사의의 밀교교학과 진언행 수행은 『부사의소』를 통해 신라 사회에 현신성불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제시한다. 불가사의의는 실담아자의 진언행으로 번뇌의 제멸을 통해 본심참구 끝에 본불생체를 성취하고, 현세에서 일체지지의 체득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불가사의의 『부사의소』에서는 비로자나여래를 중심으로 불지의 완성을 추구하고 있어, 당시 신라에서 유행하였던 화엄학과도 연관성이 있으므로 밀교교학은 신라 사람들에 쉽게 다가갈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원효의 금강삼매나 불가사의의 진언행 수행은 신라가 불국토가 되고, 내세가 아닌 현세에서 성불할 수 있다는 교학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었다. 이들은 불국토와 현신성불의 완성은 실천적 관법 수행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봄으로써 수행의 실천만이 그 지름길임을 말해주고 있다.

< 참고문헌 >

『韓佛全』 : 한국불교전서
『大正藏』 : 대정신수대장경

『三國遺事』
『三國史記』
『金剛三昧經論』
『大毘盧遮那經供養次第法疏』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

- 高翊晋, 『韓國古代佛教思想史』,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9.
金煥泰, 『三國時代 佛教信仰研究』, 불광출판사, 1990, 150-164쪽; 399-413쪽.
朴太源, 『大乘起信論思想研究』, 민족사, 1994.
이정수, 『大日經의 사상과 수행체계』, 민족사, 2007.
- 강대현, 「신라승 불가사의(不可思議)의 실담아자(悉曇字)에 대한 삼종비석사상(三種비석思想)」, 『韓國思想史學』 제47집, 한국사상사학회.
南東信, 「新羅 中代佛教의 성립에 관한 연구 -금강삼매경과 금강삼매경론의 분석을 중심으로-」, 『韓國文化』 제21집,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8.
金煥泰, 「新羅眞興大王的 信佛과 그 思想研究」, 『佛敎學報』 제5집,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1967.
金煥泰, 「新羅佛教의 現身成佛觀」, 『新羅文化』 제1집, 東大新羅文化研究所, 1984.
金煥泰, 「신라에서 이룩된 금강삼매경」, 『불교학보』 제25집,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 1988.
金煥泰, 「高句麗 因現義佛像의 銘文과 千佛 신앙」, 『韓國佛教史正論』, 불지사, 1997.
박태원, 「『金剛三昧經』·『金剛三昧經論』과 원효사상(I) : 中觀·唯識의 화쟁적 종합을 중심으로」, 『元曉學研究』 제5집, 元曉學研究院, 2002.
서운길, 「신라 현신성불(現身成佛)의 밀교적 영향」, 『불교학보』 제42집,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 2005.
이평래, 「『금강삼매경론』에서의 여래장설」, 『한국불교학회』 제2차 한국불교학결집대회 2분과 자료집, 2002.
鄭盛準, 「대비로자나경차제법소(大毘盧遮那經次第法疏)의 밀교사적 의미 고찰」, 『韓國佛敎學』 제50집, 한국불교학회, 2008.
海住, 「元曉의 和諍과 華嚴思想」, 『韓國佛敎學』 제24집, 한국불교학회, 1998.
한중만, 「대승기신론에 대한 원효의 화엄학적 이해」, 『元曉學研究』 제6집, 원효사상연구원, 2001.

〈 국문초록 〉

본 논문에서는 원효의 『금강삼매경론』과 불가사의의 『대일경』 주석서인 『부사의소』를 중심으로 원효와 불가사의가 제시한 신라 불국사상의 교학적 이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신라의 불국사상은 불국도에 거주하는 신라대중의 실천수행으로 나타나거나, 왕실의 전륜왕에 대한 염원과 실천, 미륵사상에 입각한 의례와 계행의 실천으로등과 같은 사회제도화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한편 원효는 『금강삼매경론』에서 외계로써 경(境)을 해석함으로써 불국은 금강삼매에서 보이는 분별과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실제이며, 금강삼매의 수행은 삼신을 구축하는 것으로 보았다. 원효는 불국도는 진속의 대립이 사라진 무분별지에서 구현된다고 주장하면서 불국사상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신라에 밀교를 전한 불가사의는 『부사의소』에서 현세의 몸으로 불신의 완성으로 본심참구에 출발하여 즉신성불이라는 일체지지의 수행도를 주장하였다. 불가사의는 실담아자에 비로자나여래를 비유하여 그 체성을 체득하는 아자관 수행과 오자엄신관 등의 진언행 수행법을 제시하여, 불가사의는 진언행 수행으로 수행자가 몸을 가진 채로 법계의 불신을 완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신라에서 『부사의소』의 유행은 원효의 유심론적 수행원리를 밀교수행의 실천작법으로 재수용하여 신라의 대중들에게 현실성불의 적극적 실천원리를 제공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처럼 원효와 불가사의는 신라가 불국도가 되고 현신성불하기 위해서는 금강삼매나 진언행 등의 관법수행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주제어: 불국사상, 원효, 불가사의, 『금강삼매경론』, 『부사의소』

■ 논문투고일자: 2020.11.04.

■ 논문심사일자: 2020.11.23.

■ 논문재심일자: 2020.12.14.

■ 게재확정일자: 2020.12.20.